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정통은성교회 담임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묵회하다 마칠 것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영적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고 부모는 이미 가셨지만 노인들을 공경하며 살 것이고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까지도 성스러움을 추구하며 살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말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평탄과 형통함이 있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실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본에 대한 사전 의미는 사물, 현상, 이론, 시설 등의 토대나 근본이며 모든 발전과 응용의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다져야 응용 기술이나 심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의 기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의 삶의 기본은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기본은 모든 흔들림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지금 삶이 혼란스럽거나 나아가야 할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나의 신앙과 삶의 기본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만 지키면 평안함과 형통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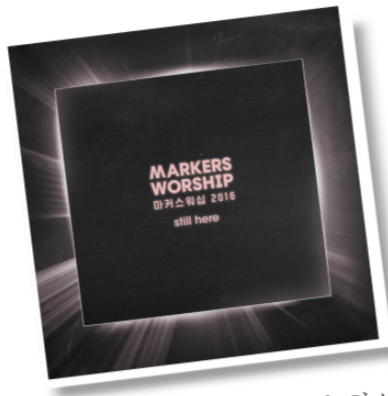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세상의 것을 좇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에 둘 때, 우리의 일상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본에 충실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마커스워십 | 마커스뮤직



여더라_삼상1:3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_삼상1:11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디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있

마커스워십2016-Still Here(CD)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 있는 여호와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_삼상3:2-3

사사기 시대 이후 더욱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어디에선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마커스워십 2016’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목요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앨범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마커스워십과 예배자들의 고백으로 곡과 가사를 만들어 11곡의 예배곡이 탄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흠 없는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열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 그 죄의 엄청난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참혹한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비극적인 삶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2000년 전, 그리스도

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곡입니다. 작사는 언론인·정치가·문학가였던 주요한(1900~1979)이 맡았으며, 그는 당시 장관을 역임한 평신도 지식인이었습니다. 주요한은 신앙적 감수성과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사를 집필했습니다.

작곡은 한국 교회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구두회(1921~2018) 선생이 담당했습니다. 구두회는 일본 도쿄제국고등음악학교와 미국 보스턴 음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음대 학장을 역임한 교회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고」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은 곡을 남기며 한국 찬송가의 현대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어

른 성도들도 찬양할 만한 곡 한국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미국 작가 안나 바를렛 워너(Anna B. Warner, 1827~1915)가 1860년에 발표한 소설 Say and Seal 속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밝은 소년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불러주는 시가 바로 이 가사였고, 이후 찬송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곡의 선율은 미국의 교회음악가 윌리엄 브래드버리(William B. Bradbury, 1816~1868)가 붙였으며, 후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를 덧붙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 덕분에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기 쉬운 곡으로 자리잡았고,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번역·보급된 찬송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 하였던 가족의 연합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5월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족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기초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우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혹은 워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1967년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어머니 날」을 기념

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가사 속에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웃을 때 찬송 부르신다”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은 오늘날 아버지 주일에 가장 널리 불리는 찬송가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단순한 가정 찬송을 넘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찬송가는 역시 구두회 선생이 작곡하신 「사철에 봄 바람 불어오고」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남궁억(1863~1939) 선생입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와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신앙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찬송가 가사를 남겼습니다. 찬송가로 선정됨으로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의 애창곡이 된 2곡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사용할 만하고 또

운 곡으로 자리잡았고,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번역·보급된 찬송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재료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 분을 함께 찬양하는 가족들 상상만해도 행복합니다. - 살림!!!



이동명
에이노스 찬양교사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imsTV (ims 21.tv)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송안의 신문'

-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기사·일반 정보·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